

#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선정

### 경진원, 전국 6개 주관기관 중 호남권역 '유일'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도전해 전국 총 6개의 주관기관 중 호남권역 유일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진원은 재창업지원 운영 노하우와 실적,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컨소시엄과 지원 인프라를 보유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의 평가를 거

쳐 '재도전성공패키지' 운영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창진원이 전담하는 사업으로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예비)재창업자에게 △총 사

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의 사업과 자금 지원과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재도전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 △창업공간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특히 경진원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 프로젝트를 올해 운영하고 있어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 (예비)재창업 기업과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도전성공패키지' 졸업 후에도 경진원에서 운영 중인 '돌출기업육성지원사업' 등 자금, 마케팅, 인력 등의 지원사업을 연계해 재창업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생존율을 높이는 데 힘 쓸 것이다.

20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오는 28일까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재도전을 응원하는 문화를 통해서 실패 경험을 자산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재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보유 인프라와 재창업지원 노하우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농협과 운봉농협이 최근 남원농협 조합장실에서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육묘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농협과 북전주농협이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내방 고객에게 꽃을 전하며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닭 원시생식세포의 핵심 유전자 최초 발견

농진청, 'Cyclin F like' 로 명명... 형질전환 연구 효율 높일 수 있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서울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닭 원시생식세포(정자·난자의 바탕이 되는 세포)의 생존 능력과 안정성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닭 원시생식세포를 사용하면 형질전환 닭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동안 원시생식세포의 핵심 유전자 발굴 연구는 생식세포학 등 관련 분야의 중요한 과제였다.

후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시생식세포는 자신의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세포와는 다른 독특한 유전자 발현 패턴을 지닌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은 닭 원시생식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를 확인하고, 이를 'Cyclin F like' 유전자로 명명했다.

'Cyclin F like'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경우, 닭 원시생식세포는 DNA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세포가 사멸되는 것이 관찰됐다.

또한 'Cyclin F like' 유전자의 발현은 전능성 전사인자의 일종인 NANOG 원시생식세포의 자가 복제 및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 유전자에 의해 강력하게 조절됐다.

이번 연구 성과를 활용하면 유전자 마커를 통해 닭 원시생식세포 유래 생식세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품질이 확인된 생식세포주는 닭 형질전환 연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생식세포 매개 고효율 유전자원보존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응우 동물바이오공학과정은 "닭 원시생식세포의 유전적 안정성과 생존 능력 조절에 관한 분자적 기작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를 활용해 조류 형질전환과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적 응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실용생물학회연합회'(FASEB) 저널 '2020년 1월호'에 게재됐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화훼 농가 릴레이 꽃 나눔 행사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내방 고객에게 꽃을 전하며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훼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3일 화훼농가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기관·단체 꽃 나눔 행사, 농협 이용고객 사은품(꽃) 증정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릴레이 꽃 나눔 행사로 사용된 꽃은 프리지어, 튤립, 장미 등 4만 송이다.

또한 농협은 사무실 내 직원 1인 1화분 비치 등 꽃 소비 생활화 운동 전개로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일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졸업식 및 기념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꽃 소비가 급감하면서 많은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꽃 나눔 행사 등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육묘장 생산시설 협소 극복 남원농협-운봉농협, 공동육묘 협약 체결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과 운봉농협(조합장 서영교)은 최근 남원 농협 조합장실에서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육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남원농협은 조합원 수 및 관내 수도작 재배면적에 비해 육묘장 생산시설이 협소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운봉농협에 2만장의 신동진 비육묘 생산을 위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랭지의 운봉농협 비육묘 공급이 완료되면 평야지에 위치한 남원농협 비육묘 공급이 시작되는 점을 이용할 수 있어, 앞으로 남원농협 비육묘 공급량 증대와 운봉농협 육묘장 활용기간을 늘려 농가 실익 증진 향상으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호 남원농협 농가소득지원부장은 "육묘는 이앙작기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일과 공급량에 한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공동육묘 덕분에 이앙작기에 농업인이 원하는 공급량을 제공해 고품질의 신동진 쌀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또한 박기열 조합장은 "농작업 시기가 서로 다른 농협이 공동육묘를 하면 시설 확충비용 및 운영비는 절감하고 더욱 많은 농가에게 육묘작업 대행은 할 수 있다며, 남원농협과 운봉농협은 협동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농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 차단된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복구 40일 소요

### 도로공사, 비용 37억여 예상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주성)는 터널 사고로 차단됐던 제27호선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완주방향) 복구에 4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 발생한 터널화재 사고로 입구에서 사고지점(70m)까지 폭열로 터널 내 콘크리트 상부가 크게 손상되고 철근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터널 조명(311개), CCTV(1개), 광케이블 등 부대시설도 손상을 입었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부터 이틀간 전문가들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터널 내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복구 작업은 파손된 콘크리트의 강관(파형) 및 콘크리트 보강공사와 전기·포장·통신 등 부대공사 순서로 진행되며, 비용은 약 3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구에 장기간 걸리는 만큼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완주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북남원IC, 서남원IC 또는 남원IC로 진출하여 국도 17호선 등을 통해 오수IC로 우회하면 된다.

남원분기점 이남(순천, 여수, 광양 등)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제25호선 호남고속도로, 제12호선 광주대구고속도로 등으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면통제에 따라 고속도로 교통여건이 평소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한 후 고속도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빠른 복구를 통해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국도 이용 근거리 우회노선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축, 온라인 상담으로 '활로'

### 전북도 기업지원과-경진원, 화상상담 프로그램 정례화

전북도 기업지원과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도내 수출기업의 실적 부진과 침체를 해소하고 수출지원 플랫폼의 다변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과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 프로그램'(Meet UP Jeonbuk Online)을 정례화한다.

전북도는 코로나19와 맞물린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바이어 대면 상담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할 활로의 일환으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을 적극 활용 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 구축된 전북도 통상거점센터(중국, 베트남 등)와 해외 현지파트너(30개소 50개소)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현재의 중국육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이드인

차이나'의 대체상품시장 진출과 신남방(베트남, 인도 등)과 신북방(러시아, 동유럽 등) 같은 신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내 화상수출상담 뿐 아니라 금융, 통관, 계약, FTA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 프로그램이 3월, 4월, 6월 등 3회 예정돼 있으며 산발적인 바이어 개별상담 수요와 글로벌 진출 관련 멘토링 수요에 대응하여 경진원 내 전담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시작은 해외 바이어의 수요가 높은 생활소비재, 식품, 화장품 등 수출 주력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전반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수출기업의 즉발적인 실직개선에 집중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신성장 전략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금 번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등의 고도화를 통해 심도 있는 수출기반 조성과 연속적인 거래선 창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주요 프로그램이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와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 조기시행 등의 타계책을 통해 도내기업의 사업성과가 만회될 수 있는 전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경진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인력 수급, 원부자재 수급, 판로·계약 등의 수출 문제, 자금 관련 피해 등에 대응하는 '코로나19 피해 신고해' (063-711-2012)를 운영 중에 있다. /김윤상 기자

### '따뜻한 인생 한끼' 중기 사랑나눔재단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접수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김영래)은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2분기 '따뜻한 인생 한끼'를 접수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따뜻한 인생 한끼'는 가족, 연인, 친구 등 평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복지시설 종사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맛있게 한 끼로 선물해 드리는 전사 프로젝트이다.

이번 인생 한끼 프로그램은 JTBC 인기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유현수 셰프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선발자는 유현수 셰프가 운영하는 '두레유' 식사 이용권이 지급된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진행하며, 인생 한끼 신청서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2분기 선발인원은 300명이다.

대상자 발표는 3월 18일 재단 홈페이지 및 선발자에 한해 SMS발송으로 알릴 예정이며 따뜻한 한끼 식사 후기가 연 윌리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수 후기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김영래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따뜻한 인생 한끼를 통해 가족과 친구, 연인 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재단의 따뜻한 전사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3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이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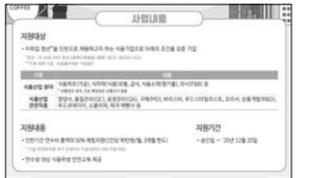
# aT, 식품외식기업 연계 인턴십 참가기업 모집

### 인턴 채용시 연수비 50% 지원 이달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2020년 식품외식기업 연계 인턴십 참가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식품외식기업 연계 인턴십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식품기업에게 연수비 총액의 50%를 지원하고, 연수생 대상 식품 위생·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aT는 총 200여 명의 인턴 채용을 식품기업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연수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인센



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aT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3)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